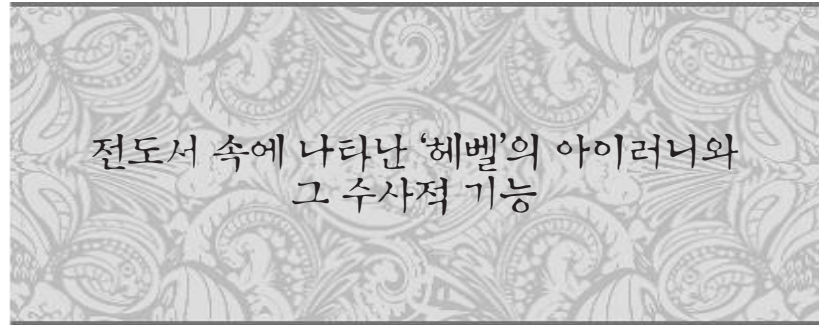


구약논단

제17권 4호(통권 42집) 2011년 12월 31일

홍 성혁(서울신대) 전도서 속에 나타난 '헤벨'의 아이러니와 그 수사적 기능	33
이 논문은 전통지혜의 가르침과 코헬렛이 경험하는 다양한 현실 사이의 모순을 의미하는 '헤벨'이 편집의 산물이 아니라 코헬렛의 수사적 전략임을 말한다. 저자는 전도서에 등장하는 코헬렛의 모순된 발언이 아이러니의 수사적 전략을 통해 '하나님 경외'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임을 밝힌다.	
Hong, Seong-Hyuk The Rhetorical Function of the Irony in <i>Hebel</i> (הֶבֶל) in the Book of Ecclesiastes	33



전도서 속에 나타난 '헤벨'의 아이러니와 그 수사적 기능

홍 성혁 | 서울신대

1. 들어가는 말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운 불가사의 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일이 좌절될 때가 적지 않다.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 삶을 즐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착실하나 늘 가난의 중압감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도 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삶에 대한 회의에 빠진다. 왜 정의로운 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불의한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지 불만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코헬렛¹⁾이 당면했던 문제이다. 인과응보에 기초한 전통적인 지혜관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이 종잡을 수 없는 사태에 대한 코헬렛의 외침은 '헤벨'이다. '헤벨'은 지혜의 가르침과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코헬렛의 경험이 충돌하는 사태에 대한 표현이다. 이 충돌 현상은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인간의 이해가 도달할 수 없는 한계 영역이다.

전도서 안에 나타난 이 모순에 대한 해석은 지금까지 주로 본문의 발전 단계

1) 히브리어로 '회의를 소집하는 자,' 헬라어로는 '회의의 회원'을 뜻하나, 전승에는 잠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사(전 12: 9)로 말한다. 회의에서 설득을 목적으로 발언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전도자'가 더 적절하다.

에서 발생한 편집자의 개입으로 해석해왔다. 회의주의적인 코헬렛의 원래 발언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편집자가 전통지혜의 경건사상을 덧칠했다는 것이다.²⁾ 역으로, 코헬렛의 회의주의는 전통지혜를 논박하기 위한 의도로 씌어졌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헤벨’을 아이러니의 관점으로 보면, 모순을 해결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응답이 해결사이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³⁾ 이것을 ‘헤벨’로부터 ‘하나님 경외’로 이끄는 코헬렛의 수사적 전략이라고 본다. 모순된 발언을 저작 단계의 편집자의 개입이 아닌 수사적 전략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필자는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두고 코헬렛의 모순된 발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헤벨’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어 ‘헤벨’이 코헬렛의 수사적 전략의 단초임을 말하기 위해 전도서에 나타난 ‘헤벨’의 모순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와 필자의 해결 방법이 언급될 것이다. 끝으로 아이러니의 기능을 통해 ‘헤벨’에서 ‘하나님 경외’로 나아가감에 코헬렛의 수사적 전략을 말하기 위해 전도서 전체에 대한 구조 분석과 서론과 결론에 대한 간략한 언급 및 ‘헤벨’과 ‘하나님 경외’가 동시에 나타나는 전 5장 1-7(히, 4: 17 - 5: 6)절에 대한 수사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2. 헤벨(הֶבֶל)의 번역과 의미

전통적으로 ‘헛되다’로 번역되어온 ‘헤벨’(הֶבֶל)은 전도서 해석의 열쇠다. 그 이유는 첫째, 히브리어 성서에 등장하는 73번의 ‘헤벨’ 가운데 38번이 전도서에 나타난다. 둘째, 책의 본론 전체를 열고 닫는 틀(inclusio)을 구성하는 전 1장 2절과 12장 8절과 같은 전략적 위치에 등장한다.⁴⁾ 셋째, 대체로 특정 단락의 서두 및 말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주제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전 1: 14; 2: 1, 11,

2) 이에 대한 논의는 아래 3장을 참조하라.

3)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C. J. Sharp, *Irony and Meaning in the Hebrew Bible*,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9), 특히, 196-220쪽; H. Fisch, *Poetry with a Purpose: Biblical Poetics and Interpretation*,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8), 특히, 158-178쪽; E. M. Good, *Irony in the Old Testament*, (Sheffield: Almond Press, 1981).

4) 동일한 형태의 הֶבֶל(하벨 하발림/ ‘헛되고 헛되다’)가 전 1장 2절과 12장 8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 본론 전체를 주제 ‘헤벨’로 감싸는 역할을 한다. 전도서의 문학적 구조에 대해서는 아래 4장을 참조하라.

17, 19, 21, 23, 26; 3: 19; 4: 4, 8, 16; 5: 10; 6: 2, 9; 7: 6; 8: 10, 14).

그러나 이 단어의 의미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리말 성경은 주로 ‘헛되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단순하게 번역하고 있지만 다른 여러 성경들의 번역들 사이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드러낸다. 우선 NRSV, NAB, NJB에서는 전통적인 번역인 ‘헛됨’(vanity)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거의 유사하게 NJPS와 REB에서는 ‘무익’(futility)으로, NEB에서는 ‘공허’(emptiness)로 번역하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를 고수하고 있는 이들 번역들은 대체로 ‘무가치하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미에 관한 접점을 찾기 어렵다. 우선 스테이플스(W. E. Staples)는 ‘헤벨’이 원래 가나안 제의와 연관되었기에 제의적 신비의 의미를 지닌다고 추측하여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로 해석하였다.⁵⁾ 그러나 이 견해는 ‘헤벨’이 가나안 제의와 실제 연관되었는지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옥덴(G. Ogden)은 코헬렛이 지혜자 조차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상황을 말하기 위해 ‘헤벨’을 사용했다고 보았다. 곧 ‘헤벨’이 ‘신비스러운’ 혹은 ‘수수께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았다.⁶⁾ 팍스(M. V. Fox)는 ‘불합리’에 관한 까뮈의 주장을 이용하여 ‘헤벨’이 인간 이성의 기대와 실제 사이의 불일치 혹은 긴장을 뜻하는 ‘불합리’(absurdity)로 보고자 했다.⁷⁾

다른 한편으로, ‘헤벨’의 문자적 의미인 ‘숨’ 혹은 ‘수증기’에 근거하여 ‘헤벨’의 의미를 말하기도 한다. 로퐁크(N. Lohfink)는 이 문자적 의미를 그대로 수용하되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인정한다.⁸⁾ 프레데릭스(D. C. Fredericks)는 ‘헤벨’을 은유로 보고 그 의미를 ‘덧없음’으로 본다.⁹⁾ 시아우(C. L. Seow)는 ‘헤벨’의 문자적 의미인 ‘숨’ 혹은 ‘수증기’를 은유적 표현으로 보고 그 실제 의미를 ‘인간이 (육체적, 경험적, 지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사태와 연관된 것

5) W. E. Staples, “Vanity of Vanities,” *Canadian Journal of Theology* 1 (1955), 142-143쪽.

6) Graham Ogden, *Qoheleth*, 2nd ed.,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7), 17-21쪽.

7) M. V. Fox, “The Meaning of Hebel for Qoheleth,” *JBL* 105 (1986), 409-427쪽.

8) N. Lohfink, *Qoheleth: A Continental Commentary*, trans. S. McEvenu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35-36쪽.

9) D. C. Fredericks and D. J. Estes, *Ecclesiastes & The Song of Songs*, (Nottingham: Apollos, 2010), 27-28쪽.

으로 본다.¹⁰⁾ 그의 제자인 밀러(D. B. Miller)는 시아우와는 달리 ‘헤벨’을 상징적 표현으로 보고 그 의미를 문맥에 따라 ‘공허,’ ‘덧없음,’ ‘불결’의 세 가지 의미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¹⁾

위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전도서 내의 다양한 문맥 속에 등장하는 ‘헤벨’을 과연 포괄적인 하나의 의미로 담아낼 수 있는지는 것이 주요 관심사다. 그것이 어렵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문맥에 따른 복수의 의미(‘헛되다,’ ‘무익하다,’ ‘덧없다’ 등)를 주장한다.¹²⁾ 또 프레데릭스와 시아우, 밀러처럼 ‘헤벨’을 은유 혹은 상징으로 보아 포괄적이며 일관성을 지닌 의미로 보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논자는 ‘헤벨’을 은유로 보아 ‘종잡을 수 없는’이란 중립적인 의미로 보고자 한다.¹³⁾ 왜냐하면 ‘헤벨’이 꼭 부정적인 의미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코헬렛이 경험한 이해하기 어렵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사태를 가리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구나 ‘헤벨’의 문자적 의미인 ‘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제어될 수 있는 중립 상태를 가리킨다. 더 나아가 전도서 전체의 구조를 고려할 때,¹⁴⁾ ‘헤벨’의 의미가 결국 ‘하나님 경외’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헛되기/무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논리가 더 적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헤벨’은 코헬렛의 ‘하나님 경외’ 지향성의 토대를 담아낸다. 결국 ‘헤벨’은 인간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긴장과 모순으로 대변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해소될 수 있는 ‘종잡을 수 없는’ 현상을 시사한다.

3. ‘헤벨’에 담긴 ‘종잡을 수 없는’ 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헤벨’은 코헬렛의 경험 세계에 발생한 ‘종잡을 수

없는’ 여러 현상과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코헬렛은 전도서 전체를 통하여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종잡을 수 없는’ 여러 사태를 ‘헤벨’이라고 거듭 말한다. 예로, 심판/보상 문제에 대하여, 코헬렛은 때때로 전형적인 전통지혜의 발언을 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는 보상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 밖에 난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한다(전 2: 26).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는 유혹하는 여인의 손길을 피하게 해주시지만, 죄인에게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한다(전 7: 26).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행동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행동하지 못할 것임은 물론 한창 나이에 죽음도 피하지 못할 것임을 말한다(전 8: 12b-13). 이에 반해, 악한 사람이 거듭 죄를 지어도 오래 산다든지(전 8: 12a),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고 말한다(전 3: 16). 뿐만 아니라, 의인이 일찍 죽는 반면에, 악인이 명성을 누리며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칭찬받는 모순된 일이 발생함을 말하면서, 왜 악인에게 즉각적인 심판이 내려지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종잡을 수 없다는’ 의미로 ‘헤벨’을 내뱉는다(전 7: 15; 8: 10, 11).¹⁵⁾

이 같은 코헬렛의 좌충우돌식 발언은 전도서의 저작과 통일성 및 해석에 관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왜 코헬렛은 ‘종잡을 수 없는’ 발언을 동시에 담고 있는가?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제안되었다. 하나는 한 저자가 기록하였지만, 모순의 존재 이유는 인용한 내용이거나 타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코헬렛과 다른 삽입된 관점과의 논쟁 및 대립 혹은 다른 편집자들의 손길이 개입되었다는 견해이다.

전자의 경우,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코헬렛이 전통지혜를 논박하기 위하여 그것을 인용했다는 견해이다. 이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팍스와 고디스(R. Gordis)가 먼저 제안하였다.¹⁶⁾ 이후 와이브레이(R. Whybray)는 어느 것이 전통지혜에서 유래한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전도서

10) C. L. Seow, "Beyond Mortal Grasp: The Usage of Hebel in Ecclesiastes," *Australian Biblical Review* 48 (2000), 1-16쪽.

11) D. B. Miller, "Qoheleth's Symbolic Use of חֶבֶל," *JBL* 117 (1998), 437-454쪽.

12) J. L. Crenshaw, *Ecclesiastes: A Commentar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87); R. Gordis, *Koheleth—The Man and His World: A Study of Ecclesiastes*, (New York: Schocken, 1968); R. N. Whybray, *Ecclesiastes* (NCB), (Grand Rapids: Eerdmans, 1989).

13) 위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옥덴과 시아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헤벨’을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

14) 아래 4장의 논의를 참조하라.

15) 다른 주제에 관한 ‘종잡을 수 없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노동(전 2: 24; 3: 13 / 1: 13-14; 2: 4-6, 11, 23; 4: 8); 부(전 5: 18 / 4: 8; 5: 10); 즐거움(전 2: 24-26; 3: 12-13; 5: 17-19; 11: 7-12: 1 / 2: 10-11); 죽음(전 4: 1-3 / 9: 4-5)

16) M. V. Fox, "The Identification of Quotations in Biblical Literature," *ZAW* 92 (1980), 416-431쪽; R. Gordis, "Virtual Quotations in Job, Sumer and Qumran," *VT* 31 (1981), 410-427쪽.

안에 나타난 인용의 형태를 찾아내려 하였다. 와이브레이는 인용문이 되기 위한 특징을 네 가지로 집약한다: (1) 독립단락을 구성해야 하고; (2) 말의 형식이 잠 10-29장과 비슷해야 하고; (3) 주제 면에서 코헬렛의 말과 모순되지만 잠언과는 어울려야 하고; (4) 후대의 언어적 특징이 없어야 한다.¹⁷⁾ 미셸(D. Michel)은 코헬렛 자신과 현자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로부터 여러 인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예로, 전 8장 2-9절에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전권을 휘두르는 왕 앞에서도 안전하다고 말하는 2-5절을 지혜 문헌에서 가져온 인용으로 본다.¹⁸⁾ 이어 6-9절에 코헬렛의 설명이 뒤따르는데 올바른 때를 분별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나온다.¹⁹⁾ 문제는 어느 말이 코헬렛의 것이고 어느 말이 현자의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인용문이 실제로 존재했느냐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용문과 코헬렛의 말을 구분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다.

모순이 타자와의 대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는 인용의 견해와 유사하다.²⁰⁾ 다른 점은 전통지혜의 인용이 아닌 대화 속의 화자의 변화에 주목한다는 데 있다. 모순의 소재를 화자인 코헬렛과 경건한 자의 대화 속에 찾는 이 견해의 문제는 화자가 어디서 바뀌는지, 그리고 무엇이 코헬렛의 말이고 무엇이 경건한 자의 말인지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표시가 없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인용의 견해와 대동소이하다.

모순이 논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는 코헬렛이 그의 생애 중 다른 시기에 발언하였거나 서로 다른 관점을 내세워 의미를 표출한 것으로 본다. 먼저 헤르츠베르그(H. W. Hertzberg)는 “그렇다-그러나”(zwar-aber)의 논쟁 패턴을 통해 본문 속의 모순을 해결하려 한다.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개념의 타당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다음에 코헬렛 자신의 견해를 밝힘으로써 그 부적절성을 드

러낸다.²¹⁾ 예로, 전 2장 13-16절에서 코헬렛은 먼저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 죽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실질적인 이점은 없다고 말한다(또한 전 4: 13-16; 8: 12-14; 9: 4-5, 16-18 참조). 이 견해의 문제는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지혜가 코헬렛의 발언이 아니라고 전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이는 코헬렛이 어떤 발언을 할지 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코헬렛이 통상적인 지혜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볼 이유는 없다.

본문 내의 모순을 전통지혜에 대항하는 코헬렛의 저항으로 보기도 하지만, 원래 회의주의적인 코헬렛의 발언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후대 편집자가 전통지혜의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 견해는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다수의 역사비평 학자들에 의해 견지되어 왔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지그프리트(C. G. A. Siegfried),²²⁾ 바톤(G. Barton),²³⁾ 맥네일(McNeile)²⁴⁾이 있다. 최근의 크렌쇼우(J. L. Crenshaw)²⁵⁾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순수한 코헬렛의 발언이나 사상이 아닌 주해나 신학적인 의도가 담긴 첨가 및 삽입된 부분을 분리해낸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긍정하는 부분(전 3: 17; 8: 12b-13; 11: 9)이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외치는 구절(전 5: 6b; 7: 18b; 8: 12b-13)은 후대의 첨가로 간주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크렌쇼우는 전 2장 26a절, 3장 17a절, 8장 12-13절, 11장 9b절, 5장 19절(히, 5: 18), 7장 26b절을 후대 첨가로 본다.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렌쇼우는 행위-보상의 전통지혜 사상을 담고 있는 전 5장 5b절과 7장 17절을 코헬렛에게 속한 것으로 보는 모순된 시각을 드러낸다. 이는 코헬렛의 원래 발언과 후대 편집자의 첨가를 구분해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설사 후대 첨가 부분을 제거한다 해도 남은 본문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17) R. N. Whybray, "The Identification and Use of Quotations in Ecclesiastes," *Vetus Testamentum Supplement Series* 32 (1981), 435-451 (특히, 438쪽).

18) D. Michel, *Untersuchungen zur Eigenart des Buches Qohelet* (BZAW 183), (Berlin, Walter de Gruyter, 1989), 91-100쪽.

19) Michel, *윗글*, 91-100쪽.

20) T. A. Perry, *Dialogues with Kohelet: The Book of Ecclesiastes, Translation and Commentary*,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3).

21) H. W. Hertzberg, *Der Prediger*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17/4), (Gtersloh: Mohn, 1963), 29-30쪽.

22) C. G. A. Siegfried, *Prediger und Hoheslied*, (G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98).

23) G. Barto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Ecclesiastes* (ICC), (Edinburgh: T. & T. Clark, 1908).

24) A. H. McNeile, *An Introduction to Ecclesias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4).

25) J. L. Crenshaw, *Ecclesiastes: A Commentary* (OT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7).

26) Crenshaw, *윗글*, 48쪽.

이러한 시각에 맞서 팍스(M. V. Fox)는 전도서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고자 한다.²⁷⁾ 곧, 한 저자에 의한 통일성을 지닌 작품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도서 내의 모순된 시각을 동일 저자에 의한 인용이나 다른 화자와의 대화 혹은 다른 저자를 염두에 둔 다른 관점과의 논쟁 또는 후대 편집자의 개입을 상정하지 않고, 모순된 시각 자체를 코헬렛의 것으로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3인칭의 회상의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후대의 첨가로 간주하는 결론 부분인 전 12장 9-14절에 대해서도 13-14절의 후기(後記)를 제외하고는 코헬렛의 고유 발언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²⁸⁾ 다만, 화자인 전달자가 지혜자 코헬렛의 가르침을 그의 아들에게 전달하는 이야기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후대의 손길을 시사하고 있는 후기도 사상적인 측면에서 코헬렛의 사상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하기까지 한다.²⁹⁾ 이처럼 팍스의 주장은 그의 ‘헤벨’에 대한 번역인 ‘불합리’가 시사하는 대로 모순된 현실에 대한 코헬렛의 경험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의 뒤를 이어 시아우도 주제와 양식비평에 근거하여 후기인 전 12장 13b-14절을 제외한 결론(전 12: 9-13a)이 본문의 나머지 부분에 담긴 코헬렛의 고유 사상을 변증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원래 코헬렛의 고유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³⁰⁾ ‘하나님 경외’를 언급하고 있는 후기도 코헬렛과 사상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보았다. 코헬렛이 제기한 긴장과 모순이 이질적인 요소나 손길의 개입이 아닌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종잡을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본장의 서두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팍스와 시아우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이런 질문을 제기하고 싶다. 그렇다면 코헬렛은 왜 이렇게 이성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 경험 속의 긴장과 모순을 시종일관 노출시키고 있을까? 왜 그의 ‘종잡을 수 없는’ 현실 경험을 ‘헤벨’이라 할까? 여기에 그가 의도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전 12장 9-11절에서 코헬렛을 많은 지혜의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27) M. V. Fox, *A Time to Tear Down & A Time to Build Up: A Reading of Ecclesiastes*, (Grand Rapids: W. B. Eerdmans, 1999).

28) Fox, 위클리(1999), 365쪽.

29) Fox, 위클리(1999), 373-375쪽.

30) C. L. Sew, "Beyond Them, My Son, Be Warned": The Epilogue of Qoheleth Revisited," *Wisdom, You are My Sister*, M. L. Barr (ed.), (Washington, D. C.: The Catholic Biblical Association of America, 1997), 125-41쪽.

할 정도의 지혜자로 지칭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코헬렛은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긴장과 모순의 압축어인 ‘헤벨’을 토로했다고 본다.

4. 헤벨의 아이러니와 수사적 기능: ‘하나님 경외’

1) 전도서 전체 구조 속에서의 헤벨의 아이러니와 수사적 기능

코헬렛은 그가 경험한 모순의 현실 경험을 ‘헤벨’이란 말에 담아내고 있다. 자신이 경험한 현실의 모순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의미를 찾아내기 어려운 ‘종잡을 수 없는’ 현실 자체를 가리켜 ‘헤벨’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헤벨’은 전도서의 핵심이다. 표제어(전 1: 1)와 결론(전 12: 9-14)을 제외한 본론의 시작과 끝에 ‘헤벨’이 위치함으로써 이를 미리 암시해준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전도서 전체의 구조가 ‘헤벨’과 이의 유관 사상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긴스버그(H. L. Ginsberg)는 본문 전체를 먼저 표제어(전 1: 1), 본론(전 1: 2-12: 8), 결론(전 12: 9-14)으로 나눈다. 그런 다음 본론을 주제를 중심으로 네 부분으로 나눈다:

A: 전 1: 2 - 2: 26	모든 것은 헛되며 사람에게 유일하게 유익한 일은 자기의 소유를 누리는 데 있다
B: 전 3: 1 - 4: 3	모든 일은 미리 정해져 있으나 완전한 예견은 불가능하다
A': 전 4: 4 - 6: 9	A 보충
B': 전 6: 10 - 12: 8	B 보충 ³¹⁾

A를 보충하는 A'의 경우에 자기 소유(돈)으로 즐기는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함을 ‘헤벨’이라 칭한다. B를 보충하는 B'의 경우에 미래의 불확실성 혹은 불가해성을 말하지만, 동시에 자기 소유로 인생을 즐기는 일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이는 A로 분류되어야 적절하기에 그의 주제

31) H. L. Ginsberg,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Book of Qoheleth," *Wisdom in Israel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M. Noth and D. W. Thomas(ed.), (VTSup 3), (Leiden: Brill, 1955), 138-145쪽.

에 근거한 구조 분석이 결코 완전하지 못함을 반증한다.

라이트(A. G. Wright) 또한 표제어(전 1: 1)와 결론(전 12: 9-14)를 제외하고 '수고'와 '청춘과 나이들'이란 각각의 주제를 중심으로 크게 두 개의 시(전 1: 2 - 11: 6; 11: 7 - 12: 8)로 먼저 나눈다. 이는 본론(전 1: 12 - 11: 6)의 내용을 감싸는 역할을 한다. 첫 번째 시는 '헤벨'로 시작하는데(전 12: 1),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의미 있는 진전도 기억됨도 없기에 '헤벨'하다는 점을 말하려 한다. 두 번째 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청춘을 즐기되 동시에 어둠과 죽음이 다가옴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헤벨'로 끝을 맺는다(전 12: 8). 그 다음으로 반복 결구와 주제를 중심으로 본론의 내용을 둘로 나눈다(전 1: 12 - 6: 9; 6: 10 - 11: 6). 그는 코헬렛의 의도가 이 본론에 집중되어 있다고 본다. 표제어와 결론을 제외한 본문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수고'에 관한 첫 번째 시(전 1: 2-11)

I. 코헬렛의 인생 탐구(전 1: 12 - 6: 9)

II. 코헬렛의 결론(전 6: 10 - 11: 6)

A. 서론(전 6: 10-12)

B.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좋은지 모른다(전 7: 1 - 8: 17)

C. 인간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전 9: 1 - 11: 6)

'청춘과 나이들'에 관한 두 번째 시(전 11: 7 - 12: 8)³²⁾

본론의 전반부(전 1: 12 - 6: 9)는 다양한 인간의 노력이 '헤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후반부(전 6: 10 - 11: 6)는 인간이 결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라이트는 '헤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전반부(전 1: 12 - 6: 9)를 8개의 소단락으로 나누는데,³³⁾ 이 때 단락 구분의 기준은 '(모든 것이) 헤벨이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הֵבֶל וְרֵעוּת הַבָּל/헤벨 우레

32) A. G. Wright, "The Riddle of the Sphinx: The Structure of the Book of Qoheleth," *Catholic Biblical Quarterly* 30 (1968), 325-326쪽. 라이트는 다수의 다른 학자들의 구조 분석들도 언급하고 있다. 다양한 구조의 비교를 위해서 라이트의 논문을 참조하라.

33) 8개의 소단락은 두 개의 서론(전 1: 12-15; 1: 16-18)을 포함한 여섯 개의 단락(전 2: 1-11; 2: 12-17; 2: 18-26; 3: 1-4; 6: 4; 7-16; 4: 17 - 6: 9)으로 구성된다. 이는 Wright, 윗글, 325쪽을 참조하라.

우트 루아흐; הֵבֶל וְרֵעוּת הַבָּל/헤벨 베라운 루아흐)이라는 반복 결구이다. 후반부(전 6: 10 - 11: 6)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서론(전 6: 10-12)을 제외한 두 부분은 '앓'과 관련하여 각각 '발견할 수 없다'(אֵינִי מֵבִינֵה לֹא לֹא 로 유칼 림조) 혹은 '누가 발견할 수 있겠는가?'(מִי יִבְיֵאֵנִי מִי מִי 임짜엔누)와 '알지 못한다'(אֵינִי מֵבִינֵה לֹא 로 야다) 혹은 '앓이 없다'(אֵינִי מֵבִינֵה לֹא 안 다아트)란 결구를 중심으로 각각 4개³⁴⁾와 6개³⁵⁾의 소단락으로 나뉜다. 라이트에 의하면, 후반부의 구조가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불가해성이다. 이 주제는 전반부의 초점인 인간 노력의 '헤벨' 모티프로부터 발전된 것이다.³⁶⁾

라이트의 소단락 나누기는 정밀하지 못하다. 예로, 전 4장 6절의 경우, 구분 기준 결구인 '헤벨 우레우트 루아흐'가 아닌 '우레우트 루아흐'만 등장한다. 정작 핵심인 '헤벨'이 빠진 것이다. 또한 전 9장 10절의 경우 구조 가르기의 기준 결구인 '엔 ~다아트'의 경우, '다아트'가 열거된 네 개의 명사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하는 명사이다. 게다가 9장 6절의 경우에 단락 구분의 기준인 결구 '부정어 + 야다'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 앞의 9장 5절에 등장한다. 이처럼 그의 구조와 단락 구분의 원칙은 일관성과 정확성이 부족하다. 전도서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어쩌면 지혜문학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일인지 모른다. 이집트의 지혜문헌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지혜문헌의 경우 정밀한 조직 원리에 토대를 두고 구성되지 않았다.³⁷⁾ 단지 다양한 주제에 관한 짧은 담화를 실었은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스버그와 라이트의 구조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투박한 구조의 밑바탕에 흐르는 주제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우선 외곽의 틀을 형성하는 전 1장 2절과 12장 8절은 '모든 것이 헤벨'이라는 주제를 분명히 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12장 9-14절에서 시사하고 있듯이 '하나님 경외'를 일깨워주려는 목적을 지향한다. 내부 단락의 흐름도 인간 노력의 '헤벨'에서 하나님의 불가해성으로 나아간다. 긴스버그는 모든 것이 헛되며, 하나님의 일은 예

34) 네 소단락(전 7: 1-14; 7: 15-24; 7: 25-29; 8: 1-17). 이는 Wright, 윗글, 325쪽을 참조하라.

35) 여섯 소단락(전 9: 1-6; 9: 7-10; 9: 11-12; 9: 13-10; 15; 10: 16-11; 2; 11: 3-6). 이는 Wright, 윗글, 326쪽을 참조하라.

36) Wright, 윗글, 334쪽.

37) Fox, 윗글(1999), 150-152쪽.

견할 수 없다고 말하고, 라이트는 인간 노력이 '헤벨'하다는 점과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불가해성을 강조한다. '헤벨'과 '하나님'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드러내준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의 눈에는 종잡을 수 없는 사태다. 이는 앞에서 정의한 '헤벨'의 의미와 실제 코헬렛의 경험에 대한 '헤벨' 진술과 일치한다.

코헬렛이 인간이 경주하는 모든 노력의 '헤벨'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종잡을 수 없다는 모순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불가해성에 대한 답답함의 토로인가 아니면 자포자기의 한탄인가? 전 12장 9-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코헬렛은 지혜자다.³⁸⁾ 지혜자로서 그는 지혜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배열한 자다. 그것은 그가 가르침의 목적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인간 노력의 헤벨과 하나님에 대한 불가해성이란 두 주제를 놓고 고민했다면, 두 주제를 통해 가르침을 주고자 했을 것이다. 여기서 '헤벨'이 담지하고 있는 아이러니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무슨 말인가? '헤벨' 사상의 밑바탕에 코헬렛이 독자에게 정작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다는 뜻이다. 코헬렛은 인간의 모든 노력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드러난 '헤벨'이 지향하는 가르침을 아이러니의 방식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것이다.

아이러니가 무엇인가? 기대와 실제 경험 사이의 차이 혹은 모순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모순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해서 모순을 없애려 하지는 않는다. 독설이나 비꼬(sarcasm)의 경우는 모순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부추기려 하나, 아이러니는 모순을 안고 더 나은 차원을 향하여 긍정적으로 통합시키려 한다.³⁹⁾ 가령, '헤벨'의 경우, 독설이나 비꼬가 '헤벨'의 종잡을 수 없는 사태를 더욱 부각시켜 세상 현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강화시키는 반면에, 아이러니는 세상 현실에 펼쳐지는 '헤벨'의 모순을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신앙 안에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게 한다. 그래서 폴크는 아이러니에 대한 통합적 시각이 인간의 한계를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시킨다고 말한다: "인간의 기대와 근본적인 인간의 한계 사이에 존

38) 논자는 결론부(전 12: 9-14)에서 후기(전 12: 13-14)를 제외하고 코헬렛이 저작하였거나 적어도 그의 중심사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39) T. Polk, "The Wisdom of Irony: A Study of Hebel and Its Relation to Joy and The Fear of God in Ecclesiastes," *Studia Biblica et Theologica* 6 (1976), 7쪽.

재하는 모순에 대한 이해로 인해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사의 우역곡절의 여러 사건들이 하나님의 무한성과 나란히 놓여지는 종교적 차원으로 나아간다."⁴⁰⁾ 코헬렛은 인간의 경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헤벨'을 건설적으로 통합시켜 궁극적으로 자신의 독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만들려 하는 것이다. 종잡을 수 없는 현실 모순을 아이러니를 통해 '하나님 경외'로 이끄는 것이 그의 수사적 전략이다. 이는 지혜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때때로 논박하면서도 전통지혜를 고수하는 고도의 수사적 전략이다. 전통지혜의 기계적 구도에 대한 전제와 압박은 은연중에 논박하면서도 총체적인 측면에서 전통지혜의 타당성을 추인해주고 있다. 이는 전 1장 2절과 12장 8절에서 전제한 '헤벨'과 전 12장 9-14절에서 이를 '하나님 경외'로 승화시키는 수사 전략에서 이미 감지할 수 있다. 코헬렛이 전 1장 2절과 12장 8절에 나타난 '헤벨'을 아이러니의 방식으로 이해하여 '하나님 경외'의 필요성을 도입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전 12장 9-14절을 통해서는 아이러니 모드에서 벗어나 실제 '하나님 경외'를 보여주려 한다. 그렇다면 과연 코헬렛의 현실 경험을 반영하는 '헤벨'의 아이러니가 지향하는 '하나님 경외'가 외곽의 틀뿐만 아니라, 본론 내부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헤벨'과 '하나님 경외'의 두 사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본문(전 5: 1-7; 4: 17-5: 6)을 예로 들어 확인해보자.⁴¹⁾

40) Polk, 윗글, 8쪽; 민 영진, "전도자의 하나님 경외," 「연신 목회자 신학세미나 자료집」4(1984), 175쪽도 참조하라; 대조적으로 최 창모는 아이러니가 독자의 회의적 세계관을 가중시키는데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최 창모, "전도서의 수사적 질문과 헤벨의 상징적 기능에 관한 연구," 「신학사상」104(1999), 138-140쪽.

41) 지면관계상 모두 다루지 못하지만, 전도서에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헤벨'과 '하나님 경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통일성을 갖춘 본문은 셋이다: 1) 전 5장 1-7절(히, 4: 17-5: 6); 2) 7장 15-18절; 3) 8장 10-15절. 1) 7장 15-18절의 경우, 의가 악보다 낫다는 보응의 원리를 정면으로 뒤집고 악은 물론 지나친 의도 추구하지 말라는 종잡을 수 없는 말을 한다. 보응의 원리가 뒤틀리는 이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 경외'가 싹틀 수 있음을 말한다. 2) 8장 10-15절의 경우도 뒤틀린 보응의 원리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의인이 벌을 받고 악인이 상을 받는 종잡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직면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즐거움과 수고 모두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임을 말하고자 한다.

2) 전 5장 1-7절(히, 4: 17 - 5: 6)에 나타난 헤벨의 아이러니와 수사적 기능

〈본문 구조〉

- 1절(a):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라
- 2-3절(b): 성급한 말을 절제하라 => 이유(3절): 많은 말은 어리석기에
- 4-5절(c): 서원을 이행하라
- 6-7a절(b): 말로 죄를 짓거나 실수하지 말라 => 이유(7a절): 많은 말은 '헤벨'이기에
- 7b절(a): 하나님을 경외하라

본 단락은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앞 단락의 직설법과 달리 1절에서 명령법(שְׁמַרְךָ שְׁמוֹרָה)으로 시작하며, 7절의 마지막 부분도 명령법(שְׁמַרְךָ שְׁמוֹרָה)으로 끝을 맺는다. 전 5장 2절과 6절도 부정 간접 명령법(אַל-תִּבְחַן אֱלֹהִים; אַל-תִּטֶּן)을 취하며 '서두르지 말라'와 '(너의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올바른 행위를 훈계한다. 서원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전 5장 4절도 서두의 시간의 부사절 다음에 바로 부정 간접 명령법(אַל-תִּבְחַן אֱלֹהִים) 형태로 서원 이행을 지체하지 말라고 훈계한다. 이런 점에서 8절에서 조건법 '임'(אִם)으로 시작되는 다음 단락의 시작과도 구분된다. 본문의 끝인 7절은 6절의 종속절로서 '기'(כִּי) 접속사로 시작하며, 6절에서 내린 입조심 명령의 이유를 제시하며 6절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앞 단락이 왕의 명성의 한계를 말하고 있고, 뒤 단락이 사회 부정의를 조장하는 정치 체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반면에 본문은 제의적 배경⁴²⁾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할 때 절제된 말의 중요성을 훈계하고자 한다. 단락의 첫 부분인 전 4장 17절 전반부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에 대한 훈계로 시작하는데, 끝 부분인 7절 후반부도 '하나님 경외'에 대한 훈계로 마무리 된다. 특히, 이 짧은 단락

42) 맥네일(McNeile)은 제의적인 문제가 지혜문학에서는 생소하기 때문에 편집자의 견해로 간주한다. McNeile, *위글*, 25쪽. 그러나 퍼듀(L. G. Perdue)는 제의와 지혜와의 상관성을 잘 입증해주고 있다. L. G. Perdue, *Wisdom and Cult: A Critical Analysis of the Views of Cult in the Wisdom Literature of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SBLDS 30), (Missoula: Scholars Press, 1977). 또한 제의와 연관된 지혜 구절로는 다음을 참조하라(잠 15: 8; 21: 27; 17: 1; 28: 9; 욕 1: 4-5; 42: 8-10).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칭어가 여섯 차례나 집중적으로 등장함은 코헬렛의 수사 전략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핵심 단어 반복을 통한 본문의 통일성을 한층 더 높여준다. 7절 후반의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결언(전 12: 13b)을 삽입한 동일 편집자의 작업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언의 편집자가 오히려 본문에 이미 여러 번 등장하는 '하나님 경외' 사상에 영감을 받아 마지막에 삽입했을 수도 있다.⁴³⁾ 그 만큼 '하나님 경외' 사상은 코헬렛에게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의와 관련된 다른 행위(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을 꺼내며 시작한다(전 5:1[히, 4: 17]). 그런 다음 2절에서 다시 명령법을 통해 성급한 말을 절제할 것을 주문하고, 3절에서 절제에 대한 훈계 이유로 성급한 말은 어리석은 자의 특성이기 때문임을 말한다. 4-5절에서는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서원한 것은 이행해야 함을 훈계한다. 6절에서 다시 한 번 말로 죄를 짓거나 실수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신중히 말할 것을 주문하며 7절 전반에서는 그 이유를 많은 말은 '헤벨'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7절 후반에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훈계한다. 본문 구조를 살펴보면, 절제되고 신중한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단락의 중심에 위치한 서원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본문의 핵심 주제는 '서원'이라고 볼 수 있다. 신중한 말에 대한 주문도 '서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서원하기 전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자 하는 주의 깊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는 1절 서두의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너의 발을 조심하라"에 잘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발'은 예배자의 행위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다.⁴⁴⁾ 주의 깊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이다. 주의 깊은 예배의 특징은 무엇인가? 듣는 데 있다.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אָמַר וְשָׁמַע 리쉬모아 미테트)이란 표현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우선함을 말한다(삼상 15: 22; 호 6: 6).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제물을 드리는 인간 행위에 우선순위를 두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그들이 잘못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

43) '하나님 경외'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다음 구절을 참조하라(전 3: 14; 5: 7(히, 5: 6); 7: 18; 8: 12-13; 12: 13b).

44) G. S. Ogden, *Qoheleth*, (2nd ed.),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7), 80쪽.

른다(1b절). 사실, 문자적 번역으로 1b절은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것을 아는 자가 없다”이다. ‘악을 행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뜻도 될 수 있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뜻도 가능하다. 코헬렛이 문제삼는 것은 전자보다는 후자다. 왜냐하면 제물을 드리는 절차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물 드리기에 급급한 자는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급한 말을 꺼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말이 앞선다. 그래서 코헬렛은 성급한 말을 절제하도록 직접 훈계한다. 총체적인 성급함에 대한 경계를 ‘입과 마음’을 사용하여 거듭 강조한다. 2절에서 ‘알-테바헬 알-피카(אל-תבֿהֿל אל-פֿיקָא)’와 ‘리베카 알-에마헤르(רִיבֿקָא אל-עִמָּהֿרֿ)’를 사용하여 입술로 성급히 굴지 말고, 마음으로 말을 서둘지 말 것을 주문한다. 그 이유를 3절에서 격언 형식을 빌어 말한다.⁴⁵⁾ 3절은 문자적으로 “왜냐하면 꿈은 일의 많음과 함께 나오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의 많음과 함께 나온다”로 번역된다. 과로하면 꿈을 꾸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cf. 전 2: 23),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뜻이다. 비유의 초점이 후반부에 있기에 말의 많음이 우선된다. 그러나 비유인 꿈의 특성이 시아우(Seow)가 말하고 있는 대로 ‘덧없음’과 ‘환영’임을 염두에 둔다면,⁴⁶⁾ 많은 말은 곧 헛된 결과를 초래할 뿐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을 많이 하면 성급한 말과 헛말을 하게 된다. 이것이 곧 어리석은 자의 표상이라는 뜻이다.

4-5절에서는 하나님께 서원할 때,⁴⁷⁾ 서원을 이행하기를 지체하지 말라고 훈계한다. 서원의 이행이 지체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성급한 말, 많은 말과 연관되어 있다. 말이 성급하거나 많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지 않은 채 서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서원하고 이행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서원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신 23: 21-23(히, 23: 22-24)). 그러므로 서원할 때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6절에서 말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키며 신중히 말할 것을 더 강하게 주문한다. 말을 성급히 내뱉어 죄를 짓게 되거나 혹은 실수로 치부해버리는 행위를 경계하면서, 반문 형식으로 하나

님의 심판을 상기시킨다. 5절에서 실수라고 말하는 맥락에서 רָשָׁעִים וְעִוְלֵי(리프네 함말야크/사자 앞에서)가 나오는데, 이 ‘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 옥덴은 이 ‘사자’를 실언을 한 서원자의 고백을 듣는 제사장으로 본다.⁴⁸⁾ 왜냐하면 ‘실수’를 뜻하는 말인 ‘세가가’(שֵׁגָגָא)가 레위기(4: 22, 27)와 민수기(15: 22절 이하)에 나오는 데 주로 비고의적인 실수와 관계가 있으며, 민수기에서 이 비고의적인 실수를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 속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긴스버그가 말하고 있는 대로 천사로 봄이 좋을 듯하다.⁴⁹⁾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기에 하나님과 동일시되며(참조: 창 18: 1-15), 본문이 줄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급히 내뱉는 서원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끝이어 나오는 7절에서 3절의 격언을 재론하며 말을 신중히 해야 할 이유를 언급한다. 사실 7a절은 구문상 번역과 해석이 난해하다. 직역하면, “왜냐하면 꿈의 많음과 함께 그리고 종잡을 수 없음(עִוְלָאֵן 하발림)과 많은 말”이 된다. ‘꿈’과 ‘헤벨’과 ‘말’의 세 명사를 중심으로 접속사 ‘웨’(ו)에 의해 병렬된 명사문에 가깝다. 문제는 ‘웨’(ו)와 ‘꿈의 많음’과 연결된 전치사 ‘베’(ב)를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중요하다. 팩스는 전치사 ‘베’를 ‘케’(כ)로 바꾸고 ‘말’ 앞에 붙은 접속사 ‘웨’를 제거하여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왜냐하면 많은 말은 많은 꿈과 불가해함과 같기 때문이다.”⁵⁰⁾ 많은 말과 그 결과의 헛됨과 ‘종잡을 수 없는’ 특성을 잘 반영해주는 번역이다. 그러나 원문을 고쳐야 하는 것이 문제다. 옥덴은 고디스를 따라 접속사 ‘키’를 강조형 ‘정말로’로 보며, 명사문을 강조하는 번역 “정말로 많은 꿈과 좌절과 많은 말 속에서”를 제안한다.⁵¹⁾ 이 제안은 다분히 7b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와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다. 정작 본문의 핵심 사안인 많은 말에 대한 관점이 잘 부각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화이트리(C. F. Whitley)의 제안을 새길 만하다.⁵²⁾ 그는 세 명사 중 마지막의 ‘말들’(דִּבְרֵי דִּבְרֵי דִּבְרֵי דִּבְרֵי דִּבְרֵי)에 붙은 접속사 ‘웨’(ו)를 강조 부사인 ‘실로’로 해석한다. 그리하여 “왜냐하면 꿈과 불가해함(헤벨)의 많음 속에 실로 많은 말이 있다”로 번역한다. 꿈이 헤벨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감안할

45) Ogden, 윗글, 81-82쪽.

46) C. L. Seow, *Ecclesiastes* (AB), (New York: Doubleday, 1997), 198쪽.

47) 고대 이스라엘에서 서원은 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삿 11: 30-31; 삼상 1: 11) 다양한 형태의 헌신을 보여주기 위하여 행해졌다.

48) Ogden, 윗글, 83쪽.

49) H. L. Ginsberg, *Studies in Koheleth*, (New York: Jewish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 1952), 340-44쪽.

50) Fox, 윗글(1999), 233쪽.

51) Ogden, 윗글, 84쪽.

52) C. F. Whitley, “Koheleth and Ugaritic Parallels,” *Ugarit Forschungen* 11 (1979), 811-24쪽.

때, 이 번역은 본문의 핵심 이슈인 ‘많은 말’의 종잡을 수 없음을 잘 드러내준다 하겠다. 한 마디로 많은 말이 곧 ‘헤벨’이라는 뜻이다. 3절에서 말한 바와 일맥상 통한다. 말이 많으면 결국 ‘헤벨’로 끝나게 된다.

본문에 드러난 대로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에서 서원할 때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서원을 들어주실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현실에서 그들이 경험하며 가지게 된 하나님에 대한 주제넘은 생각이다. 사실, 전통지혜는 말의 신중함을 주문한다(잠 10: 14, 19; 17: 27; 21: 23; 전 6: 11; 10: 13-14). 그러므로 사람들의 생각은 전통지혜와 충돌하며, 서로 모순된다.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서원중에 말을 많이 하면 기대하던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야, 즉, 하나님이 서원을 들어주셔야 한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한다. 코헬렛이 보기에 이것이 ‘헤벨’이며, 아이러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은 순전히 인간들의 주제넘은 생각이요, 기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린다. 인간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별성,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2절 후반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말을 적게 할 것이다”는 메시지와 어긋난 행보를 한 것이다. 인간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헤벨’이며 아이러니다.

여기서 코헬렛은 이런 모순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죄를 회개하거나 흠 없는 제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코헬렛이 은연중에 시사하고 있는 신중히 말하라는 전통지혜로의 회귀도 강요하지 않는다. 말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코헬렛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을 그대로 노출시켜 갈등을 심화시킨다. 말을 많이 하면 서원의 응답은커녕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게 한다. 관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훈계하기 위하여 말의 신중함을 주문한 후에 수사적 질문을 던진다: “왜 하나님이 너의 목소리에 대하여 화를 내며 너의 손으로 한 일을 부수시게 하려느냐?”(6b절). 서원에 대한 인간의 통상적인 경험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든다. 이 때 ‘하나님 경외’를 꺼낸다. 이처럼 코헬렛은 인간들이 많은 말을 통해 기대했던 바와는 다른 결과 ‘헤벨’로 대변되는 아이러니의 사태를 ‘하나님 경외’의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

다. 이것이 그의 수사 전략이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경외’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 있다는 것, 곧 하나님의 ‘타자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코헬렛에게 이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에 대한 긍정이다.⁵³⁾ 이것이 코헬렛의 훈계의 궁극적 목표인 것이다.

5. 맺는 말

코헬렛은 전통지혜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경험 세계는 전통지혜와 달랐다. 코헬렛은 전통지혜와 경험세계의 충돌을 ‘헤벨’이라 규정한다. 논자는 이 ‘헤벨’을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점에서 ‘종잡을 수 없음’의 뜻으로 정의하였다. 그런 후에 코헬렛이 ‘헤벨’을 외칠 수밖에 없는 모순된 현실 경험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쏟아놓은 이야기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글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코헬렛의 의도는 독자들의 시각을 ‘헤벨’에만 묶어두지 않고, ‘헤벨’의 모순을 격화시키는 아이러니의 수사적 전략을 통해 ‘하나님 경외’로 승화시키고자 하였다는 점을 전 5장 1-7절(히, 4: 17-5: 6)과 전체 구조 분석 및 서론과 결론부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통해 보여주었다. ‘헤벨’이란 곧 코헬렛의 눈에 비친 종잡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지혜로의 회귀나 다른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모순과 긴장을 더욱 격화시킨다. 이것이 일반적인 기대를 전복시키는 아이러니다. 모순의 격화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다. 인간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눈에 모순인 사건도 하나님은 고유의 방식대로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의 모순이 격화된 자리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경외’로 나타난다. ‘하나님 경외’는 종잡을 수 없는 사태를 겪으면서 느끼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신비, 불가해성, 타자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코헬렛은 아이러니의 수사적 전략을 통해 그의 독자들을 ‘하나님 경외’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치는 순간, 절망도 인본주의적인 대안도 아닌, 모순된 현실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께서 고유의 방식대로 해결하시리라는 코헬렛의 ‘하나님 경외’를 내재

53) Polk, 윗글, 14쪽.

화시키는 일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견지해야 지혜가 아닐까?

6. 참고문헌

- 민 영진. “전도자의 하나님 경외,” 「연신 목회자 신학세미나 자료집」4(1984), 167-179쪽.
- 박 준서.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운동,” 「구약논단」8(2000), 133-149쪽.
- 차 준희. “전도서 5장의 신학적 읽기: 주석과 메시지,” 「구약논단」36(2010), 116-135쪽.
- 최 창모. “전도서의 수사적 질문과 헤벨(חֵבֶל)의 상징적 기능에 관한 연구,” 「신학사상」104(1999), 112-145쪽.
- Barton, G.,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Ecclesiastes* (ICC), (Edinburgh: T. & T. Clark, 1908).
- Crenshaw, J. L., *Ecclesiastes: A Commentar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87).
- Fisch, H., *Poetry with a Purpose: Biblical Poetics and Interpretation*,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 Fox, M. V., “The Identification of Quotations in Biblical Literature,” *ZAW* 92 (1980), 416-431쪽.
- _____, “The Meaning of Hebel for Qohelet,”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5 (1986), 409-427쪽.
- _____, *A Time to Tear Down & A Time to Build Up: A Reading of Ecclesiastes*, (Grand Rapids: W. B. Eerdmans, 1999).
- Fredericks, D. C. and D. J. Estes, *Ecclesiastes & The Song of Songs*, (Nottingham: Apollos, 2010).
- Ginsberg, H. L., *Studies in Koheleth* (New York: Jewish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 1952)
- _____,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Book of Koheleth,” *Wisdom in Israel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M. Noth and D. W. Thomas(ed.), (VTSup 3), (Leiden: Brill, 1955), 138-145쪽.
- Good, E. M., *Irony in the Old Testament*, (Sheffield: Almond Press, 1981).
- Gordis, R., *Koheleth-The Man and His World: A Study of Ecclesiastes*, (New York: Schocken, 1968)
- _____, “Virtual Quotations in Job, Sumer and Qumran,” *VT* 31 (1981), 410-427쪽.
- Hertzberg, H. W., *Der Prediger*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17/4), (Gütersloh: Mohn, 1963).
- Ingram, Doug, *Ambiguity in Ecclesiastes*, (New York: T & T Clark, 2006).
- Loader, J. A., *Polar Structures in the Book of Qohelet* (BZAW 152), (Berlin: Walter de Gruyter, 1979)
- Lohfink, N., *Qoheleth: A Continental Commentary*, Translated by S. McEvenu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 McNeile, A. H., *An Introduction to Ecclesias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4).
- Michel, D., *Untersuchungen zur Eigenart des Buches Qohelet* (BZAW 183), (Berlin, Walter de Gruyter, 1989).
- Miller, D. B., “Qoheleth’s Symbolic Use of חֵבֶל,”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7 (1998), 437-454쪽.
- _____, *Symbol and Rhetoric in Ecclesiastes: The Place of Hebel in Qohelet’s Work*, *Academia Biblica* 2,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2).
- Ogden, Graham, *Qoheleth*, 2nd ed.,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7).
- Perdue, L. G., *Wisdom and Cult: A Critical Analysis of the Views of Cult in the Wisdom Literature of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SBLDS 30), (Missoula: Scholars Press, 1977).
- Perry, T. A., *Dialogues with Kohelet: The Book of Ecclesiastes, Translation and Commentary*,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3).
- Polk, Timothy, “The Wisdom of Irony: A Study of Hebel and Its Relation to Joy and The Fear of God in Ecclesiastes,” *Studia Biblica et Theologica* 6 (1976), 3-17쪽.
- Seow, C. L., “Beyond Them, My Son, Be Warned’: The Epilogue of Qoheleth Revisited,” *Wisdom, You are My Sister*, M. L. Barré(ed.), (Washington, D. C.: The Catholic Biblical Association of America, 1997. ㄱ), 125-41쪽.
- _____, *Ecclesiastes* (AB), (New York: Doubleday, 1997. ㄴ).
- _____, “Beyond Mortal Grasp: The Usage of Hebel in Ecclesiastes,” *Australian Biblical Review* 48 (2000), 1-16쪽.

- Sharp, C. J., *Irony and Meaning in the Hebrew Bible*,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9).
- Siegfried, C. G. A., *Prediger und Hoheslie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98).
- Staples, W. E., "Vanity of Vanities," *Canadian Journal of Theology* 1 (1955), 142-143쪽.
- Whitley, C. F., "Koheleth and Ugaritic Parallels," *Ugarit Forschungen* 11 (1979), 811-24쪽.
- Whybray, R. N., "The Identification and Use of Quotations in Ecclesiastes," *Vetus Testamentum Supplement Series* 32 (1981), 435-451쪽.
- _____, *Ecclesiastes* (NCB), (Grand Rapids: Eerdmans, 1989).
- Wright, A. G., "The Riddle of the Sphinx: The Structure of the Book of Qoheleth," *Catholic Biblical Quarterly* 30 (1968), 325-326쪽.

검색어

헤벨

코헬렛

종잡을 수 없음

아이러니

하나님 경외

The Rhetorical Function of the Irony in *Hebel*(הבל) in the Book of Ecclesiastes

Seong-Hyuk Hong,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In the book of Ecclesiastes we find many contradictory remarks on various topics. Qohelet as the preacher shows conflicting perspectives with regard to various life situations such as toil, wealth, enjoyment, death, wisdom and retribution. Thus he call this contradictory situations *hebel*. For instance, Qohelet expresses that "to the one who pleases him God gives reward, but to the sinner who loses his favor he gives punishment"(Ecc. 2: 26). By contrast in Ecc. 8:12a he says, "the sinner who does evil prolongs his life" and also in Ecc. 3:16 "there is wickedness in the place of justice."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at such contradictory situations are not the result of editorial activity but belong to Qohelet's rhetorical strategy pointing to the 'fear of God.'

For this purpose, this paper will define the proper meaning of *hebel* first, and then briefly mention the contradictory situations represented by *hebel* in the book and the scholarly debate on the subject as well. In the next stage, this paper will show that the contradictory situations expressed by *hebel* is not the evidence of editorial activity, attempting to find out the structural coherence of the book as well as to rely on the rhetorical function of irony.

The majority of the scholars have maintained that the final editor of the book introduced the orthodox voices of piety into the book in order to moderate the skepticism of an 'original' Qohelet. However the present writer claims that the contradictions can be solved by the understanding of the coherency of the book

except for the postscript(Ecc 12: 13-14). If the contradictions are to be rightly dealt with by the rhetorical method called ‘irony,’ then they could be led toward the ‘fear of God,’ while reflecting the limits of human existenc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building up the coherent perspective of the contradictions in Qohelet represented by hebel. It will also affirm that the contradictions are Qohelet’s rhetorical strategy of irony to generate the ‘fear of God,’ not the proof of different authors’ activity.

Keywords

hebel

Qohelet

Contradictions

Irony

Fear of God

- 투고일: 2011년 9월 25일
- 심사일: 2011년 10월 15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0월 26일

www.kci.go.kr